

안전운전 하면 보험료 할인... 보험사, UBI상품 시장 활성화

(사용량기반보험)

DB손보-네이버와 안전운전 특약 안전점수 71점, 최대 20.8% 할인 캐롯손보, 할인 쌓이는 굿드라이브 독창성 인정 '배타적 사용권' 획득 UBI시장 성장 위해 외부협력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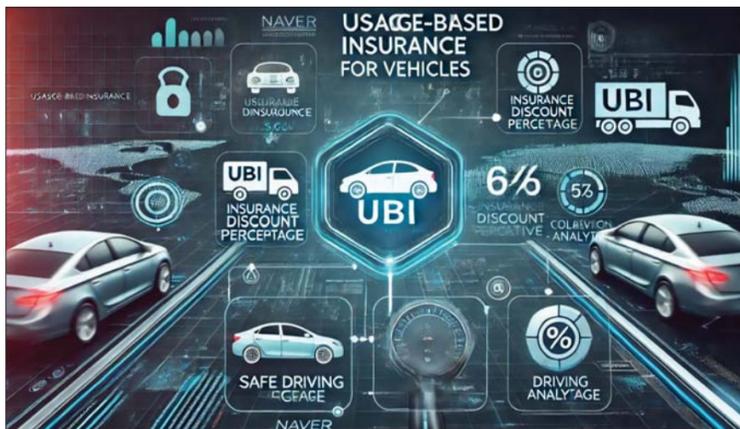
보험업계가 관련 업체와의 협력 강화 및 보험료 할인 등으로 사용량기반 보험(Usage-Based Insurance·UBI) 상품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UBI는 차량 주행거리 또는 안전 습관 등 주행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사용량기반보험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특약 형태의 UBI 상품을 출시하고 주행거리 또는 안전운전 할인 등으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해 관련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UBI 시장은 안전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적용 대상 장치 및 소비자 인식 확대 등으로 점차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석희 연구원은 "일부 보험사에서만 제공하던 안전운전 특약이 최근 대부분의 주요 보험사로 확대돼 국내 UBI 시장은 점차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업계 최초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사용량 기반 보험(UBI)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로 네이버와 내비게이션 기반 안전운전 UBI 특약 상품 출시 등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비게이션 기반 안전운전 UBI 특약 상품은 네이버 지도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운전 습관을 분석한다. 최근 6개월 내 500km 이상 주행 이력이 있고 '운전분석 페이지' 메뉴에서 안전점수가 71점 이상일 경우 최대 20.8%의 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UBI 특약으로 운전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나아가 네이버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운전 데이터를 통해 DB손해보험은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캐롯손해보험은 안전운전 할인 특약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안전운전 달성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6월 첫 심의에서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 위원회는 캐롯손해보험 특약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캐롯손해보험은 일부 수정을 거쳐 업계 최초로 자동차 보험기간 중 안전운전 달성 횟수에 따라 할인 보험료를 산출하고 정산 환급하는 제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초 결정을 뒤집고 캐롯의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높게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부여했다.

캐롯손해보험은 "손보 업권 통틀어 자동차보험 종목에서 4년4개월만에 첫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며 "이번 배타적 사용권 부여가 재심의 과정 끝에 이뤄진 점도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UBI 상품 시장 활성화에 나서면서 외부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라 제언이 나온다.

UBI 상품 가입은 안전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유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UBI 가입이 가능한 대상 차량 확대 및 다양한 평가 요소 반영을 위한 데이터 확보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천 연구위원과 임 연구원은 "UBI 상품 도입 후 청구건수가 12% 감소하는 등 안전운전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사고율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보험사는 안전운전 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외부업체와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해외 0.5%포인트 적립 솔트레블신용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솔 트래블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 공항라운지 연간 3회 무료

신한카드는 해외여행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트레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일시불 이용금액의 0.5%를 마이신한 포인트로 적립한다. 전월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의 0.5%를 마이신한포인트로 기본 적립한다. ▲여행 ▲교통 ▲쇼핑 ▲맛집 ▲운동 영역에서는 사용금액의 1.5%를 추가로 지급한다. 단 추가 적립은 전월 국내 이용금액 40만원 이상일 경우 제공한다.

KB국민카드

KB손보 해외여행보험 신규가입 5000포인트

KB국민카드가 성수기인 7월을 맞아 해외 이용 고객 대상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 전세계 공항라운지 이용권

KB국민카드는 '휴가의 시작은 트래블러스와 함께하세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2월 31일까지 KB페이 행사 페이지에서 KB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5000포인트를 증정한다. 납입보험료 건당 최대 10%까지 적립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스타벅스에서 원화환산금액 5000원 이상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20%를 포인트로 돌려준다.

NH농협카드

온라인 명품 소비 현황 거리두기 해제 후 32%↓

NH농협카드가 조사한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온라인 명품 매출이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명품 소비 유행 분석

NH농협카드는 '소비트렌드인사이드 보고서·온라인 명품 소비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온라인 명품 소비 감소폭은 ▲이용금액(32%) ▲이용건수(38%) ▲이용 고객 수(41%)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30% 이상 감소했다.

여성보다 남성의 소비 변화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33%) 대비 남성(45%)의 이용건수 감소폭이 더 가파르다.

20대와 30대 이용고객수가 각각 63%, 38%로 크게 줄었다. 반면 60대의 경우 이용 고객 수는 3%로 소폭 증가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무계... "문제점 보완 후 시행해야"

구체적 가이드라인·법률 미비 선부른 과세에 투심 냉각 우려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추가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성급하게 시행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점 보완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

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세 시스템이 미비하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가 부재한 것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미뤄지며 오는 2025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됐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세 유예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구체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률, 제도적 기반 등이 미비한 상태로, 선부른 시행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먼저 가상자산의 경우 현재로서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자산은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초단위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제시한 취득원과 실질적 소득을 산정하는 방안이 따라가지 못한다.

또한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통한 경우 최초 취득가격을 추적하기 어렵고, 여러 거래소를 거칠 경우 지급 주소와 거래내역을 거래소에서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해외거래소 이용은 탈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문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기 때

/이승용 기자 lsy2665@

대우건설, 부산 다대3구역 정비사업 수주

692세대 신축... 2143억 규모 부산 랜드마크 단지 조성 예정

대우건설은 지난 1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일대에 위치한 '다대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다대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2만 5838㎡의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7층 4개동, 69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금액은 2143억원 규모다.

다대3구역은 부산 1호선 낮개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 대형마트를 포함해 상권과 공원 등이 있어 정주여건이 좋다.

대우건설은 다대3구역에 푸르지오 시그니처 디자인과 푸르지오만의 상징 컬러를 적용한 촉박 디자인 특화, 푸르지오 옥탑 구조물 특화 등을 도입해 부산의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 예정이다. 사업 조건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한 필요 사업비 최저 금리 조달, 입주시 부



부산 사하구 다대3구역 재건축아파트 투지도.

/대우건설

담금 90% 납부 등을 제시해 조합원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다대3구역을 부산을 대표하는 명품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불량 씨앗 74, 더비치 푸르지오 씨앗 등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부산에서 100년을 책임질 주거 명작을 지어

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6일 신반포 16차를 시작으로 2주 연속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오는 20일에는 마포구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릴 예정이며, 시공사 선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